

가인글편우종二韓國 충합
한국日五초월十년二廿國 인

호일五초월十년二廿國 민한대
일五초월九년 진경 력총

報週洋平太

KOREAN PACIFIC WEEKLY

SERIES 27 VOL. 11 NO. 406 OCT. 5 1940

931 N. King St., Honolulu, T. H.

Published and Owned by Dongji Hoi

Subscription Rates: \$4.00 Per Year; 10 Cents Per Copy

● 호상부원 고인검씨 별세

九月二十八일에 호항동지호상부원 고인검씨가 별세
해야 二十九일하오 시에 귀족교회 김천순목소주례
로써 두아누 장례에 안장하였습니 一瓣동지회 호상부
원은 호상금을 정지일로부터 보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二十二년十月 일 중앙부장 손승운

○ 호상에 대호주의를 저고

무친처호호상원의 경의법결은 본호상부에서 주장
함으로 장의 소와 교섭후 엊순죽 누구시먼지 친척이 업
시작고호호상부원의 장의에 대호야 의롭코 저 희시는
친구는 반듯시 호상부와 만져문의후시오 누구든지 친
구하고 장례시 일을 자의쳐 단호하게 되면 오히려 호상금
과 대호금과 함께 공전을 필납지 안은 부원이 계신즉 속속히
보너주시와 후일에 충원파 서비스가 업개하시기를 바라
느니다 동지회호상부 주무원 베일진 근고

Entered as second-class mail matter, April 29, 1930
at the post office in Honolulu, Hawaii, under
the Act of March 3rd. 1879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누구의 덕인가

근일에 동지회원간에 누구의 덕으로 동지회를 하야 가느냐는 문제 가 종종 회론의 기로 본보 억시 그의 토론에 참전코 저호니 대체『역본다』는 의미는 다 궁금해 세나 운 말이다

동지회원은 말호기를 동지회에서 호상부를 창설한 야 동포의 정의를 보살펴 주심으로 - 반 호상부원에게 각제호도 음이되니 동지회에서 호상부 사업을 척수치 안았드린 그동안 면역 호상부원의 장래는 거의 시군정 정부인세를 지었을리이매 동지회호상부에 톤 - 반회 원은 동지회년례금 닉는것을자세하고 동지회가 호 흘허려 반대호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훌밀이업습으로

태평양주보

동지회호상부에 드려서 사후감정을 의탁한 엿순이 우리는 전사에 누가 글로 반대호였다는 것을 가지고 론란 훌필노가 업시 단해사업으로 동일 - 시호는 만후정칙을 쓰는것이 올토다 동지회로는 - 반회원에게 호상봉 색제공홍을 사업승훈가지로 네여세언제면지 여러 봄을 봉사호하여 이에 대호야 호상원에게 동지회역본다는 말을너노지 안 키를 바라는 바이다

호상부원중 엇연이는 말호되 우리호상부원이 동지회를 맛드려 가지 안으면 동지회자래유지 문제가잇엇을 것인데 우리호상부원이 성의껏 맛드려온 까닭에 동지회가 호상부의 덕을 본다 하며 호상부가 동지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도 한다. 사실에 들어서는 호상원이 동지회사업을 맛드려서 호상부사업을 광고히하기로 동지회에 각항 의무를니며 동지회사업을 천성호다호상부원은 동지회년례금 닉는것을자세하고 동지회가 호상부원의 덕을보는 것처럼 주장호니 실제 대드려서서 호상부가 따로 사업을 차티고 제반호상부 사업을 처리 훌다면 그 거대한 경비는 다 어디서 판비될는가

동지회로는 — 반동포의 공리를위호야 존제호매우
손방면으로든지 예의본에게 청조와편의를 광급할것
이 있다면 조공도사양치하고 본사호겠노라 그림으로
동지회가 누구 누구와 데을본다 흠에 리히가 상반호즉
— 한풀자는 역본다는것을가지고 갖는단원간 설왕설
터처밀고 동지회사업발전과 공교지체을 의론승며지
도호기률부락호노라

동지회 — 전행정 손승운

— 一九三九年十月에 텁서로 소집된 미포 동지대표의
총력을밭아 중앙부장체임을 맞는본인은 동지회사업
성적을장처 소집될 미포동지 네례대표회에 재정호러
니와 그동안 일련회정호에 대호야 나의소감을 — 반동
지에제을니고저호이외다

나는중앙부장을 명의로 보아 실제로사무 처리나사
업전횡에 즉정착수호엇거나 간섭호배업스나 오죽제
반사무를 — 반임원에게 분당식하고 매일 — 차식동지
회원에와서 동센거티와 중요사항을의론맞재 처리호

람니다

구슬이서말이라도 죽여야구슬이라고 예결산은 심
계경히노코 동지회살림사리를 — 년동안 치루어갈라
흐셧는데 대판절공전이 잘수입되어야 일을치루어가
지안습니세

금년에인구새로 수입된총액 三百원가량을 텁시정
부저무부에 상남호엇스며 금년부로 얼마가더수입되
든지더수합호야 텁시정부로 납송호겟습니다

외교비로돈지호면 예산에는 三구월을정호야 매삭
二百五十원식 보너개결정호고 그동안매삭 五百원식보
너순죽 실상반의도못되니다 그림으로나는 매삭미경
에환전호째마다 심히민망하여입니다

우리사업을 위호야 돈을나쁜불도 어려우실련니와
여러분 사정을안는 중앙부장으로는 꿈전너난시사고
엿풀영의가 잘안남네다 꿈전필남호시고 성심으로맞
들어오신 동지재씨에게는 늘감사호니 나만은 아죽세
지잇쳐듯님분은 꿈전을속히 필남호야 동지회사업전
팅에구애가 업게호시기를 바립니다

엇슬으로 니가천히진정호대도 그에세여나학슬는지모
를니우 사업상판계로 시간이부족호야 동지회에밀접
호면계되는점함에만종종참례호일이잇셋스며 허와이
마위랑도동모는 삼방호엇스며 규기오하후 각쳐예산
제호동모는 — — 히상면치못호야 유감으로 네이논바
인즉 — 반동지는판서는지오

작년十월에 개최된림서 대표회를필하고나서는 금

년정월에정식대표로는 소집되지 안엇슬으로 금년임
정임원이 — 一九四一年도 신임회정임원이 선책될때세
지논본인이 동지회칙임을 계속호야맛하 보겟슴으로
동지회사정을 여러분에게 엿줍니다

네례대표회에서 민국二十二년도 동지회예산 세
운것을불진된 동지회년례금으로 一千六百원·주보대
금八百원을예산호엇는데 그정액를 채우라 면 아죽도
거익이부족호니 금년三개월내에 예산대로 대들어올
는지걱정이외다 년례금파 주보대금못너신 동포들을
위호너가 대신걱정호니 다만은 — 반동모는 아모리
어려우실지라도 네례금파 주보대금을 보너시기를바

히틀러 동치하에 범국 쉬·만간

한간씨는 파리가 히틀러군사에게 항복호울시
에그거사를 외국보도호바 八월八일에 억국정부
는 그를 출국호엇다 약二개월간 히틀러동치하에

법국실정이 엇더호것을『라이푸』주보에거저호엇
기로 번등—거자
파리식 一九四〇년 六월十三일— 이곳은 독강비성
시다 빙한주민온방으로 피란호고 남어지며사람이
감안히안저서 력병들어오기를 기대된다 五百사무소
용남호는큰전돌파 꿩장호 애판멘트집에 너가흔지독
차지호엇스니 파리에화려한 주택디朋은 무인지경이
다체다·엘서스 벙화한시가에 자동차 어덟파 험언—
타인맞게 업셋고 사처동 배배호는 으로이애근 거래
에 소통물고단인디 단화벗제더든 교통온다로전호야
사람들이 걸어단하는데 국가의유령이 조각에달난판
국에 늘근사람은 법국체표팔나 빙정을돌라단인다음
식정에상노는 디도망가고 런그빈요리집에 한두사람



이 음식을 석 허서 먹었다.

법국 신문이라는 데 업서지고 마즈막 출간 허락, 추적 분한 장신문을 팔아도 된다는데 파리성을 방어 치 알고 덕군에게 광제 너두 것과 달리 남쪽 주민을 안심 했었다. 오늘 날이 청명 훈데 파리 성은 간혹 으레 드 오방 송이 회에는 엎더 케될는지 풍히 모르고 있다.

파리Six월二十四일— 어전 깨밤 열전에 파리라는 세상이 있는 가의 심호였다. 쥐죽은 듯이 조용히 파리에 석유 져 장소에 불이 나서 화평이 벌한 간 출현 허야 가서 본즉 구 경문은 우리 몇 사람 이오 세계에 유명한 파리가 그리 종 용호에서 삼원자성 시인자 물난다. 둘라을전에 퇴진 헤야 돌아오는 법국 군사는 기진 디전 헤세 경을 흘신천 꽁점을 보니 참기 막 혔다.

새벽 두점에 파리성은 광야 것처럼 종 용호고 동문에 사는 멋진 가구는 그려지거에서 그 째 사자 직군을 대항 훙다는 으례 되오 방송을 듣고 종안심 하서 눈을 놓쳐고 린 일이나 좀나울사하고 있다. 파리에 있는 사람은 그이를 날아첨에 덕병이 히를 끊겨 둘 각공 청에 달라 둘라 단니 꽁점을 보니 참기 막 혔다.

법국에 헤여서 어여쁜 파리 새 악씨들은 서로 세근근거리면서 담화 했었다. 외면에는 놀려 헤여지 만은 실재티 면에는 법국 자우사상 파리 헤리이 우리 담대에 다시 회복 될 눈지의성이 되여 법국 운명이 암암 헤여다.

파리Six월十七일— 주일인 고로 성너가 다고 요하고 보통 시갓 헤스나 시외에는 가매 근린 정부부가 현자 동차에 금급히 세이 순이를 헤여다 채드. 엘리스번화호 시가에는 음식정이 멋개얼여는데 전갓 헤면 호사 호남 너가 작페 호아 항량 생활을 헤것이 어늘 오늘로서는 냐 만별호 헤사람들 밟게는 다 피란들을 헤것이다.

그 좌석에 덕국 행사를 파평복 정답이 영·법식의 북을 본째 있게 입고 안에서 키커니 저커니 술을 마시며 벙어 트 통화 헤야 병인의 간담을 서늘케 헤여다 법국 사람들은 세 명령을 복종 헤서 신문이나 그의 의 치장 거리 손가방 을 다 바리고 쪽아 헤정이 되면 방출을 못 헤다 한 번은

고장을 보고 경검 헤여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혼이나서 들 어가고 집안에 앉은 사람들은 다 모르고 지냈다.

나시十五분에 콘코궁에 미국사 전사와 신문통신원 으래 드 오 거수들이 정령 헤고 덕국에 다 파리 정령 헤는 광경을 으레 되오 방송보도 헤었다. 나시十八분에 덕 병이 창겁을 생나들고 남방에 출전 헤야 다시 쌔울 것 같 치 헤령 헤야 것는데 그 헤데 파리시민을 경겁 헤만 헤는 병들이 헤오를 지어 착착 드러서고 오스추리 아동민 청년들 우의자가 둑동 헤야 각각 계계로 들어오는 중었던 병병은 고단 헤서 마상에서 머티를 뜻 머기하고 둘며 앗다 이 세상에 헤오 시령을 규모적으로 능효 있게 헤운 덕 국군대의 파리성 전령 일대 빙이 되니 선 파리성 려판에 는 덕 국장편이 방방에 샤람 저울 쳐를 정희가 지고다 둑숙 헤것을 마련한 후 장관 계급을 써라 매 움니 징을 구 범호 헤다. 낫에는 덕국 형풍 대가 성서를 주위 헤령 헤야 광망하는 파리가 파란 도성 천연 헤듯지 저림미가 될사 헤야 망자 소조호는 병령들의 풍랑을 엎더 케 단속을 잘 헤노았던지 파리 정벌이 안이라 어느 정당 대회 갖치



온데, '법랑국'로 「유티얼'은 원치 않고 억울증만 받노
라.' 써서 못 치고 단이기에 둘은 즉 그 눈에 당한 기를 「수처
는 모었으나 빼 전것이오 나는 법국 귀족의 후성으로 이
련간 판들고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네이 노라.' 하였다.
Six 월 二十六 일 一 식 물감시 갑절이나 올으고 챙고 통흘
히이다 덕병들의 주린장자를 채우라고 판현이 법인을 석
허서 각종 풍설을 수레에 실고 길에 다니며 덕병에게 판
다 차차 피란민들이 돌아와서 가개를 열고 장사를 하며
덕국장판은 빈민을 위호하야 음악연주를 무료 공급한다
방중에는 각종 용호 야망 훈도 시각하는데 베소린남재는
업서지고 만화방조의 향거가 파리성을 훤힐았다

중국민주정체구원 전호련속

一一一
卷三十一

卷之三

었던편으로는 국민자격이 특수한 애 청년파에서 요구되는

고로 잊서 유의 훈련만 확실히 본다면 기어이 해 보려고
후눈고로 민주정체 현장성립방향으로 주의할것이다
일인전선후면에서 크게 실현되는것으로 추상후면 민
주에 성공이 적지 않아 이곳에서는 거진 양년전에 각종
단체를 조합하여서 더 방판티 선거를 전향하였는데 장
년 남내八十 할 이상이 험심으로 참가하였다 이점에 있어
서서 중국이 민주 실현을 척실히 준비하고 쓰중국공업
합작회를 통한 애서 민주천축을 만회 실습한다 중국에
여기저기 성립된 여러 개 광업합작회가 피란민의 직
업안을 공구호출원의 라 군인이나 평민의 일우들을 산출
하고 또 먼 장래를 통한 애서 영구호출원 거초를 세울도 된
다 순리로 저성된 합작회는 발서다른 민주국에 도움을
만히 뱂고 또 그방면으로 발전됨에서 각개인이나 민주성

만 말해 엇스나 그 외 반대로는 민주실폐세력이 자라지 말나는 법도 있다

국가주의란 민주제에 정한 되지 안은 만치 제—세계 전란 후 경제 협상을 이루어 서 보면 민본주의 반대편으로

분명히 기우려졌다 폭정에 국가주의는 독재 정치로 화하고 민주제는 국제적으로 빤져한 막찰을 가졌다는 것 이 보통인 줄로는 문제 처리다 금일유력한 중국에 국가주의가 독재 정치편으로 기우려질 날도 거칠치 못할 것이다 중국에 독재 세부를 다수 청진자들이 금년 안으로 민주화 시히려는 결심을 가졌는지 중일제정이 려가는 동안에는 독재 정치 민주제를 벌로 구별치 안음이다 즉ち 고 쟁쟁한 후기 노란이 엇기쉬운 일이다 그 덕분에 중국이 필경 원통에서 짐승 활통하는 독재 정치편으로 뛰어들 위험도 가제고 있다

현동에 최후 안전 피 평화는 중국인이 그 평화로운 신
리상위를 실지 잇는 정치로 높히 변호고 못하는 정체는
잇슬지 언정 소수 주권자를 소원이나 욕망에는 매여 있
지 안음이 정령한하마 현실에 있어서는 결국 애민주를 꾹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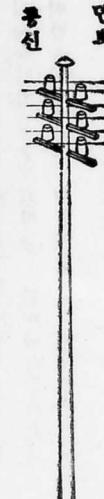
고나서 티라는 정장군으로 그 세력 중심을 정하였으나
장장군은 일인 청약을 기어이 물니쳐서 숭전하고 나서
티라는 결심도 겉보기 야가졌다 이런 의세 암박으로 민주
정부가 회성될가 도훈다

샤실이 이러 훙족 원통시국과 밀접관계된 다른 민주
국들이 그 정체를 범경 험여스면 조흘가 훈다아 일세력
은 자연히 민주정치 반대편으로 경향된다 소련은 중국
으로 향여금 일본을 방비하는 간접국을 삼으려는 것뿐
이다 그러나 소련이 현실 범경대로 그 정체를 벌이 훈자
도 모른다 만일에 중국 중앙정부가 편허 저서 무법천지
가다시된거나 일본이 서편으로 데우고 끼드려와서
소련 안전을 혼들더거나 규칙희생 아축들이 생겨서 탕
편이 다 갖치 일본에도 음을 구호다면 중국에 잇치는 불
운은 물가 형언이 오 써라서 미국의 원통지위도 성가실
것이다

래호에 또

래호예쓰

면보



이 일 || 구 동 명

버린연... 九월二十七일에 레'이' 일 || 국의 동맹조
약이 성립되며 반포호는 봉은여좌호니
— 일본인의 이랑국의 구라파신실시 전설에 대호 지
도마지위를 인증하고 이를 존중호

— '이' '이'는 일본의 대동아전쟁에서 전설에 대호 저도역
자위를 인증호

— '이' '이' '이' || 국은 이상조전에 근본호야 뇌역호에 호
상현역호을 조약호 || 혜약호에 드나하든지 구주
전정과 송일전정에 참입지안은 나하로서 공격되련
三국은 정처·경제·군사방면으로 협상원조호

四·본조약을 순성 시험키로되. 이·일·三국은 합동위원
회를 자체처 말고 개최호

五·이·일·三국은 연거제조항이 각각 소련국에 판호

조약승다른 어느나락률 지목호은 미국이다 미국이 구

전에 참가하게 되는경우에는 체약三국이 협상원조를
보증호것이오 미국이 참전후 면량평대양에 서역·이·일

三국의 —이·五千만파 써우게 되리라하고 미국을 경고
호이라호였다

하야 본조약을 개정할수잇습

동경년... 고노에수상은 레'이' '이' || 국 통령에 대호
으레피오로 선설호 엿스미역·이랑국 대사판에 새설기
가나서 맹주를 마서가며 질탕노ട다 일본원색은 전정
이속히 손날풀을었다가 더 상구호 교통을 담호게되으
로 발표노릇하고 고민함이의 면체 낫타났다

아시히신분은 사설호 기를 일본은 자족자금호 흥성
권전설을 결의하고 —방미국도 전정이의에는 다른수

이 본 은 통 을 한 증

동에서 미국의 역사적권의와 미시민의 조약상권리를
어느정도까지 준수호야 평화적으로 해결호것이어늘
각권세력으로 조약을파기하면 이번전쟁이 세계혁명
이 되리라호였다

동 으로 전정 격화

모스코년... 소비앗과판보는 레'이' '이' || 국 통령에 티
후야 평화기를 미국이 영국을 협조함으로 이 조약이 성
립되야 전정이 격화되리라하고 || 세개국이 소비앗의 중
립을 존중호야 소비앗이 그 조약에 참가치안었다호였다

로마년... 레'이' | 이랑국의 상운 서반아너무대신 서너와
수회합호였는데 서반아는 || 국 통령에 아주 참가치안
엇으나 불원간역·이편에 참가호야 서반아의 넷날행로
지불래 근구로향을 회복코 저흔다

국통령을 비란호엇스 | 이 미국이 동양세바라기는 미국
화미국인의 정당호리의·권위존중과 통상과 회교등을
인증하며 국제협정과 조약존중일대 일본본처의가원

회평양주보

뉴욕년... 뉴욕 월·렌리그람은 미국이 —千五百만원

차관을 경제 협력한 것과 영국 대사가 미 정부에 군수

물급송동을 둔란하고 면·이·일·三国 동맹에 대한 국회
에서 전쟁 문제를 솔직히 해결하라고 '우리도 전쟁에
향하는 길을 일고 내부 발전과 달라나는 바람에 던선이가
다 뵈이지 안는다'

뉴욕 포스트는 전설한 기록을 우리 가승국을 여도이며
대통령에게 전쟁 속 일본과 통상 거래를 절단하셔파
궤에 쓰는 전쟁 물물로 가지게 하자 하였스며

마나화단에 싸비신문은 이에 대항 암호 기록이며, 이
일·三国 동맹은 미국의 외교 정치에 불파일다. 두 인도는
일본의 선동아 질서에 균형을 정착에는 양보할 수 없노
라 하였스며

호항 조간에 버라이스는 혼령을 일본에 불파
래에 위험을 막지 만은 지금 혼령으로 광범조인에 불
파이다 일본이 정치·경제·군사상으로 더·이를 도울 수
있어서 일본이 간난 배·이·이에·온·돈·원을 주여
써낼 수 있고 군사적으로 두 나라를 도를 수업다 이 번동
명이 히틀러의 대영공습 실패를 증거함이고 군사 실패

를 운휘하락함이고 의교 활동을 삼며 낸 것이다.

통령색 참가 훈일본이 막을 길을 취해하고 야성으로 의
판을 냐여다 보 히기에 전도가 암암히 히를 빼나 부술
리니처럼 일본이 아시아 민족을 북종케 훙 권위를 갖지
안었다 조만간 시간이 오면 일본은 그 통령에 베를린에게
풀탕식을 것을 깨다를리라 하였다

세간스라 불례 힌은 혼령에 대항 암호 기록 일본
이 덕·이전에 들어 순검을 보면 세계 평화를 국제 협의로
유지기는 다 들어서 히틀러와 평화로 당판 못을 바에는
군력으로 탕한간 조쳐 흥이 올라하고 영국 철조를 헤설
하였다

충경 보도에는 三国 동맹이 너정으로 오터 전부 레발
론 되었다가 지금 조연함에 대경 실색 흘것이 안이 노하
하며 아라샤의 히도가 엇지 변통될 것을 주의하노라
엇더라

동아 위협에 불과

로로면... 정부 대국은 三国 동맹에 평화 기록·이가

일본을 부동하서 구전파송일적정에 미국이 간선 못하고
도록 위협함에 불파라 한며 면·이·일·三国 동맹으로

군사 상의 이를 것 우업고 다만 선전에 티용거리 만 되며
일본이 독자파제 그들의 도움을 밟기는 고사하고 일본
이 동양서 단독 힘을 주호에 끈한이 업지 한으리라 했다

동아 대 흥정

양에 대 흥정

와 성종년... 유력호로 공화·민주당·영당 인도자들은 미
국이 원동에 강경 훈정적 사옹 훈을 친성호다 미국이 약
히서 필립핀에 독립을 허락하는 줄 일본이 오히려 헤리
고로 미국이 필립핀을 보유하는 공통이 성공하다.
헤리스 하이원은 말하기를 독재 통령에 대답할 것은
미국의 영국 후원이오 청동문제는 대서양에서 결정한
다 하였더라

소련을 풍에 네려고

영선 침몰

통경년... 의부대연자 수마는 말하기를 아라사가 자
빌리 으로 불침약 조약을 일본에 제출하면 일본이 의론

기월 二·三일로 주일간에 영선十九척(十五만
千二·一·八十)과 중립국상선五척이 미국장항 정에 청



불되었던 영국상선순회는 보통주간에 3배나 된다.

【】국도망에 영국은 복

미·이·일·영·독·영·성·령·대·호·영·국·은·보·복·정·적

을·영·미·간·에·심·의·호·는·중·경·국·은·멋·가·지·를·제·출·호·었·스·니
一·十·월·十·八·일·이·후·로·비·마·를·개·종·호·야· 중·경·정·부·에·군
수·품·용·단·에·편·의·를·줄·것·이·다· 중·경·정·부·는·미·국·으·로
二·千·五·百·만·원·차·판·을·었·더·각·중·군·수·품·을·구·매·hood
이·다

二·하·평·양·에·대·호·방·어·협·정·을·체·결·호·이·나·이·도·영·국·이
오·수·축·래·고·리·아·느·뉴·릴·린·방·국·과·방·어·천·을·체
결·호·고·미·국·의·양·회·를·었·미·국·파·합·작·함
三·영·국·의·자·치·령·에·서·군·수·품·등·속·에·대·일·금·수·를·단
횡·호·것·이·다

본·든·공·습·피·회·는·九·월·에·사·자·가·五·千·명·부·상·자·八·千·명
이·타·고·비·공·식·으·로·반·포·되·었·다

일·본·인·은

천·회

동·경·면···주·생·일·본·대·사·관·우···영·국·에·거·류·호·는·일·인

비·린·면···영·국·형·공·대·가·역·경·을·계·속·공·습·호·도·져
에·론·손·회·가·낫·다·정·부·는·주·민·피·란·을·허·락·호·었·스·며·거
一·일·공·습·은·다·섯·시·간·이·나·걸·여·서·역·국·백·성·들·도·향·공
대·항·호·리·라·홀·다

○ 영·덕·의·향·공·전·정

비·린·면···九·월·二·十七·일·에·역·국·항·공·대·는·四·면·에·서
한·벽·에·론·든·을·공·습·호·야·방·공·대·를·늘·니·려·다·가·역·거
一·百·二·十一·천·이·색·려·졌·고·영·국·비·고·손·실·운·二·十·五·천
이·라·호·었·다

방·어·소·에·서·자·냈·다

○ 영·국·비·고·(百·二·十一·천·手·實)

론·든·면···九·월·二·十七·일·에·역·국·항·공·대·는·四·면·에·서
한·벽·에·론·든·을·공·습·호·야·방·공·대·를·늘·니·려·다·가·역·거

一·百·二·十一·천·이·색·려·졌·고·영·국·비·고·손·실·운·二·十·五·천

이·라·호·었·다

법·군·이·일·전·에·법·군·이

봉·폐

하·노·이·던·랑·손·지·방·에·서·일·군·チ·ヤ·에·부·액·거·세·점·폐
호·법·군·이·당·디·세·도·착·호·야·말·호·기·를·그·의·멋·중·대·는·일
군·에·개·점·밀·을·당·호·엇·다·그·술·대·의·수·천·명·대·장·한·사·람
온·일·군·세·재·포·로·되·었·는·데·사·로·점·한·사·람·을·공·리·아·모
아·노·코·하·로·방·한·세·식·먹·이·며·엇·던·자·는·적·삼·도·업·시·산
아·호·엇·다·百·여·명·부·상·호·법·군·과·안·남·군·은·거·차·로·하·노
이·애·당·도·호·었·다

수·일·전·에·일·본·항·공·대·가·연·안·점·경·대·폭·란·을·더·저·순
히·를·한·히·났·다

법·일·랑·군·이·안·남·국·경·내·서·작·전·준·비·를·호·는·데·법·군
장·관·은·말·호·기·를·법·국·정·부·명·령·에·의·호·야·일·병·청·입·을
항·거·치·말·라·호·었·습·으·로·랑·손·지·방·을·일·군·에·개·세·것·노
타·一·만·명·일·군·이·랑·손·을·습·격·하며·항·평·으·로·법·국·의·청
공·방·어·계·계·를·파·제·호·었·스·며·안·남·사·람·은·일·군·의·안·남
자·가·되·야·일·군·을·도·았·다·일·군·에·개·포·로·된·안·남·군·사·는
다·군·거·를·세·것·다·일·군·은·안·남·시·립·을·선·통·호·야·비·인

한국어원서

111



일·인·이·미·국·에

충·세

뉴·욕·던···미·이·일·통·맹·이·성·립·되·후·로·지·포·인·인·들·이
미·국·에·충·성·호·사···혹·은·제·五·부·대·정·립·대·가·일·인·중·에·있
술·새·하·미·뉴·욕·모·스·트·에·거·저·되·바···그·술·멋·가·지·를·지·적
호·었·스·니

一·하·와·이·에·저·류·호·일·인·운·다·부·분·미·국·에·거·화·치·안
었·습

二·일·어·를·교·수·하·며·일·어·학·교·에·서·제·국·주·의·률·가·라·칠

三·一·百·五·十·七·일·인·싸·口·관·의·제·복·전·횡·종

四·일황을 헌신 갖쳐 송배호는 마을

五·미·일·중·국 이·난·동·안 합·자·전·령

六·미·국·의·경·제·통·을· 강·화·함·에· 일·본·은·시·국·부·선·전·을·

작·물

상·하·민·부·선·전·으·로· 동·록·을·자·물·히·다·가· 日·本·천·병·사·령

부·에· 넘·기·고·법·국·순·사·는· 일·인·요·구·대·로· 동·부·선·전·에·서·

야·역·호·는·中·국·인·7·명·을·체·포·호·쳤·다

법·국·관·한·요·구·에·의·호·야· 소·저·미·국·령·사·는·그·부·선·전·

수·색·을·허·락·호·엇·스·나· 거·구·작·물·을·불·허·호·쳤·다· 중·국·서·

외·국·으·로·나·오·는·통·신·은· 전·부·일·인·검·령·을·방·는·바· 미·국·

인·의·경·영·호·는· 무·선·제·자·업·에· 일·인·저·희·가· 안·을·으·로·저·

중·국·미·국·인·들·은· 무·선·전·보·호·적·을· 국·부·성·에· 제·출·호·엇·

며·라

○ 영국의 전비 격증

로도면... 九·月·三·周·二·十·일·노· 년·종·한· 一·년·세·출·총·액

온·一·百·三·十·七·억·원·이·며· 세·입·은· 五·四·四·억· 四·千·만·원·이·

라·호·더·마



一一十二萬 원

첨부

라·성·에· 본·부·를·루· 맥·진·건·춘·회·삭·는· 三·三·三·만· 五·百·원·

에·회·호·비·회·장·에· 차·제·장·전·축·에· 입·찰·되·엇·미·라

○ 마·위·군·영·화·장

마·위·피·구·갈·로· 국·민·군·련·습·소·는· 十·二·만·五·千·원·에· 확·장·호·야· 一千·七·百·명·을· 수·용·호·훈·다·데·라

○ 하·금·장·판·주·택·전·축

하·와·이·주·둔· 미·국·죽·군·사·령·관· 효·른·대·장·은· 반·포·호·기·

률·루·스·卑·로·대·종·령·을· 하·와·이·에· 뤄·군·하·금·장·판·주·택·전·

축·비·二·百·만·원·을· 인·가·호·쳤·다·호·며· 희·학·가· 메·하·메·하·군·

영·뉘·하·금·장·판· 주·례·百·五·十·체·를· 불·원·간· 전·춘·할·리·이·라·

호·더·라

十·월·六·일·에

학·부

신·홍·국·어·학·교·에·서· 학·부·形·회·를· 十·월·六·일·(주·일)· 하·

오·두·시·에·열·고· 학·교·와·학·성·교·수·에·의·호· 진·전·hon·mun·de·을·

의·로·호·러·이·니· 一·반·동·포·는· 래·침·기·를· 바·란·다·미·라

동·포·식·당

○ 헐·로·디·방·리·봉·서·씨·는· 七·十一·세·로·환·으·로· 九·월·十二·

일·에·별·세·호·야· 씨·의·친·구· 殿·학·준·씨·가· 정·비·명·장·에·의·

을·써·서· 헐·로·봉·종·대·장·지·에· 안·장·호·엇·호·며· 씨·의·원·자·

온·경·성·풀·문·밭· 왕·나·리·라·마·라

○ 호·창·티·종·홍·씨·는· 축·월·중·으·로· 신·교·라·가· 저·二·十九·일·

에·불·회·히·별·세·호·야· 十·월·一·일·하·오·두·시· 기·독·교·례·배·당

예·세· 김·창·순·목·수·의· 주·례·로·장·래·식·을·거·팅·호·고· 누·안·누

장·지·에·안·장·호·엇·호·며· 씨·의·원·자·은· 개·성·이·오· 담·년·六·十

세·이·며· 씨·의·유·족·은· 부·인·파·장·성·호·四·남·四·녀·이·미·라

○ 독·감·유·형·에·유·희

한·나·위·생·국·은· 반·포·호·회· 오·아·후·도·에· 독·감·환·자·가·六

百·명·이·파·호·며· 독·감·이·전·영·된·죽· 감·과·돈·사·랑·운· 출·입·지

현·임·정·부·의· 의·교·제·책·을· 친·설·함·이·미·라

결교장에서 조리호라호벗더라

인사소식

○ 본행 김정현씨 장자 용운씨는 명장암이 발성되어 위

금제되어 금금회 쿠인 병원에 입원호야 수술 치료 중

에 이스며 김정현부인 고애나 니사와 씨의 자부는 류

형감자로 자택에서 치료 중이며

○ 강근철씨 자녀는 미주로 가

호항 가구상 주인 강근철씨 사남 사마 양파 군용 석용

두자제는 류학자 미주로 갔다더라

○ 정씨의 풀저택 누님 출원

본항 정재윤씨 물재 면누님은 뇌 아하 훔에서 오리치료

작가 원자 되 이달 21일에 출원호였더라

○ 리부인도 독감으로

거독학원 학감 리원순씨 부인 매리너소 독감으로 교

생증치료호 샤이업시 샬무에 불망히 저녁 감은 참으로

민망호더라

○ 본행 정사 준씨 부인 선이네사는 연후 중으로 수술을
하고 자택에서 치료하는 숭이라더라

○ 본행 양월서 씨도 복병으로 연후부 쿠인 병원에서 수
술치료 중이더라

○ 선산 호항리 장춘씨 부부는 9월 21일에 신남

동지회 청앙부 주일 저정

○ 널레금

와일누아 주상빈 작금량년 8월

와히아와 조응주 1월 박춘서 4월 류철웅 1월

손명순 1월 김광한 1월 이상암금 16월

와일누아 주상빈 작금량년도 2월

와히아와 손명순 1월 어상합금 3월

의유옥 주상빈 작금량년도 8월

안득준 4월 광고금 2월 합금 14월

○ 자동차비 호항 서저큰 서복수 각 1선

○ 외교비
호항 리원순 5월 김철순 1월 리천봉 1월
복일루아 주상빈 2월 ○ 와히아와 백봉용 1월
이상합금 10월

호상부 주일 저정

보단

○ 고·서창옥조 배신설 손명순 리종의 김국경 송정신

고·남성식조 배신설 손명순 리종의 김나득 김능언 김국경 송정신

윤애인 송경현 김광저 안득운 신공섭 구평삼 최춘서

이형의 조종순 리홍희 홍영수 박성면 정두숙 임평순

신경화 정율필 안도현 윤의서 리계선 송자준 리인덕

복탄행 박정보 김웅법 손중보 벼서영 빙윤정 김정현

고애나 한법터 토인 김영기 박인순 리영수 박천식

김철실 안숙자 장준일 리상종 정관업 최적작자 호경

손옥준 리성렬 김상범 박무선 마진설 리강설 인성현

민순이 토인 김철수 동부인 립학규 차영근 리춘삼

이봉운 김창식 리명선 동부인 립명설 리정식 동부인

정오

파하우 리만명씨 1월 루락된 것과 리승운은 리순옹

세로정오

전주 일호상부 재정보 단너에 배학규씨 비석 갑내 10

천은 박춘식씨 비석 강으로 정오

호항 김철순 문인화 각 1월 할금 1월

리부인 별세

본향충성군서 병모님 리성도씨 노신병으로 연호하야
로차로 염마전에 출향하야 쿠인병원에 입월하야 치료
중에 잊셨는데 불학히 복월二일에 별세하야 누안누장
의소에서 애를 경파한후 죽일 오후두시에 립두화쪽
수주례로 안장하고 있습니다.

리부인은 우리동지회 호양부원이신고로 향니호양
부원은 하로방을 갖치지 않았습니다 각처에 산재하신
한부원씨는 호양호신도へ로 속히 호성금을 보너
주기를 바란다더라

청년대회 성황

대학성회주최로 제五차 청년대회를 九월三十일 저
녁에 호창선교관내에서 전진호였는데 향니청년
남녀만三百五十명이 참석하야 대성황을 이루웠다.
당아 순서 중특색은 중령사총무 활동과 전성의 동양
현상에 대한 연설연대 선생의 말씀이 중국어 三면 전정
에 성명파저선희성이 불소호지만 이로써 중국 민족의

합동화정선적 부흥이 되었으니 암호로 향전을 계속
야 최고승리를 엊을지며 한국의 통일협조로 고려 사람
도 장래에 회망잇스리라.
두교회 천양대의 노련와 리매리·방바바 양의 독창
파티 순옥형제의 지성을 드러내고 복성금의 재당파 소년
녀자들의 조선출파 리에 스터주장으로 거동계 되도록
셋다 함께
김창순목수의 간단호강상당과 림두화족수의 거도
와 주석 강령각씨의 취지설명이 잊셨는데 이 번수고호
청년들에 대학성회에서 물질로 선사하고 후정에 빼
회하고 있다라

여민마을

오거제상회 하와이 음악회사 신을노가구상 천진화가
구상 청두우 최두우 양복점 홍필남씨의식물정각각
집거부

물질파저생을 부호신분들은 권도인 五원 으례되
는 톤튼면... 영국상선이 침격됨을 싸타 히틀러는 영국

원정을 금년가을나로 뜻장보기로 노외이에 三十五만
백병을 총진호야 영본로습격에 되호 훈련을 준비 했다
하며
덕경누리 통선애의 훈족 일본통신원은 히틀러판대
에 소집되어 三국통령이 성립되어 덕국의 군사와 외교
적지위가 강화됨으로 영국원정은 불필요라 했었다

공습방어에

론돈면... 덕국六百항공대는 영국을 습격하기 항공
방어대에게 퇴축되었는데 10월 2일 다섯번 공습에 손
히는 적으며 소비에서 범국제 항공대 대포를 발사 했야
나타나는데라

○○ 광고 ○○

일전에 맥스코 너자가 하와이에 왔다가 의국인 등록
법에 의호야 등록호였는데 조선편·나네스스는 二十三
세내자로 六百八十근이 되자 두〇〇호에 부대호나자
로는 세계에 어셨자가 같다더라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와성훈면... 레이·일·국·도·영으로 위호야 미국우대
서양에 서로 홍대를 두기로 엘리스하군부 도록을 일컬어
하야 百二十五척 군호를 통괄케 했다

헬기가 빙매겼습니다

각종의 부파 저봉지구가 구비됩니다

호례거리 一四六호 재봉점 주민 주·예루·풍백

페년데스 구경판에 거인한 사람이 있는데 17세된
후인 청년이 온 신장이 一丈六촌이오 五百파운 체중이
바거신희사는 그의 청상을 채로 만들었다

고

식물파 약종이 구비호오니 소용대로 청구호시오

전신속히 속옹호오리라

△약품 심전대보환 제四元

△약품 심전대보탕 제四元

충당 한송 一원五十전 삼용보 약수 一병 四원

인상 一동 十五전 二十二원

190 二十전 二十九원

자양환일제 四元 조경환일제 四元 우황청심환일제

二元 이외에도 영단 성선환파 그라 각종약이며 각

종소설파 우라버신대소송이 만이잇사오니 한번시험

호야보시요

싹고 이숙끔은 인상부자 대조강엇다섯가지로 조합

된고인데 명증습증 모든 체증에 신효잇는 신발령이

혹니 이상병증이잇는분은 일차시침호야보시요 뉘운

수고한근에 一元이 오상수고고환 一근에는 五원

본인이 약풀파 식물파 소설등속을 발매호는바 배

전원에 본국서 새로 들어온 물건이잇사오니 예의본
이 광고에 있는것을 주문호시면 즉시 수옹호게슴니다
복용 국성품 一량 一斗원 ○ 주의말습 一전 七十五
안치환(감자약) 一감 五十전 ○ 주의말습 一전 二원
전 ○ 조선자독본(교파서) 一전 一원廿五전 ○
육련통 一질 一원七十五전 ○ 춘양전 一전 五十五전
법두머리암운데미는약 ○ 나일는데약 ○ 국상풀비단
풀당초 一근 二전 ○ 사향 ○ 향사 ○ 문중五十전
육전 一전 一원廿五전 ○ 춘풀시대 一전 一원廿五전
수온, 산풀 삼용대보환 一제 九원 소합환 一개
二十九전 이외에 청식풀이나, 약풀이나, 각종 소
설이 구비호오니 만전하대 한동포는 이고 헤주실을
간절히 바바나이다

549 N. SCHOOL ST. Honolulu, T. H.

민화 八八七九

五四九 스클러거리 베일진

BAI YIL CHIN



교방 풀인씨 편

본래만은 팔월호야 거처에 편리호오며 공자가 선생
호야 선생에 저항하며 항구 중앙에 있으니 성업상에 편
리호며 여울목목물용 늘었고 매사를 잘 주선호야 선속

수옹호야 드립나라 一만동포께서 만히 차자오시옵

풀인씨

一一四九 뜯거리 던화 六八三五九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東洋으로 가는 배

十月 十一 日 해오마루

十八 日 크리볼린

二十七 日 아상아마루

四日 피어스호 터푸트 九日 클리춰

한흔 二·七〇 五十四전 廿四전

일화百전에 미화廿四전

사랑시네

서부소연화 五一九八

돈시네

의회학사 경성북

一一一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Institute

2134 HALINA STREET KALIHI UKA
HONOLULU, H. T.
八九三九三四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국인 의사의 사무소 전교관이 출판사)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국인 의사의 사무소 전교관이 출판사)

사무소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국인 의사의 사무소 전교관이 출판사)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국인 의사의 사무소 전교관이 출판사)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국인 의사의 사무소 전교관이 출판사)

한국인 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STATEMENT OF THE OWNERSHIP, MANAGEMENT, CIRCULATION.
etc. Required by the Act of Congress of August 24, 1912, of Korean
Pacific Weekly, publised weekly, at Honolulu, Territory of Hawaii.
Territory of Hawaii)
City and County of) SS.
Honolulu)

Sept. 28, 1940

Before me, a Notary Public, in and for the territory and county
Aforesaid, personally appeared Y. K. Kim, who having been duly

sworn
according to law, deposes and says that he is editor of the Korean Pacific Weekly, and that the following is to the best of his knowledge and belief, a true statement of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aforesaid publication for the date shown in the above caption, required by the Act of August 24, 1912, embodied in Section 411, Postal Laws and Regulations, printed on the reverse of this form, to wit:

The owner and publisher, Dong Ji Hoi, an eleemosynary corporation; Editor Y. K. Kim.

That the average number of copies of each issue of this publication sold or distributed, through the mails or otherwise, to paid subscribers during the year was the preceding data shown above is 500.

During the twelve months preceding the date shown above is 500.
Y. K. KIM, Editor.
FRED R. GIDDING, Notary Public.

Sworn to and subscribed before me Sept. 28, 1940.
(My license expires June 30, 1941.)

고평
식물전방 고평

白頭山

본인이 베리란니 아거리 아아타코너에 식물원전방을
선선히 엿사옵는데 (각창식물, 각색채소, 각종파실, 석
물로는 업는것이 업상된다 물건은 죠 죠 선선히 것을
취해놓고 같은 다른전방보다 좀 훨씬재 파옵니다
의심마시고 본상점에 차자와서 한번 시험해보시오
특별히 농장에 재선풍포세 부탁드립니다 식물의 푸
엇이던지 원회시는디로 부탁하시면 못수옹하여를일
레이오며 뜨거운 농장에서 채소등속에 무엇이던지 본
상점에 보이고 부탁하시면 상당운감에 팔아서 살수
있시희들을라이 오니 누구시던지 한번 시험해보시고
페차 인연을매져서 장터사업에 취미를벗어내 홀세다

Y. Y. WHANG
329 BERETANI Street
Honolulu, T. H.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